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성경:** 요한복음 17장 14-21절

Tag:거룩,4차원의영성,영성,가치,신약성경,요한복음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14-21)

세상이 급속하게 타락하고 있다. 예전에 바람직하고 마땅한 것들이 업신여김을 받고 불법한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으며, 예전에 부끄럽고 사악하다고 정죄받던 것들이 버젓하게 활보를 하고 오히려 마땅하게 여겼던 것들을 정죄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안간힘에서 비롯되고 있다. 왜 당국은 이처럼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것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들은 세상이 이처럼 타락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일까? (당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인데, 여기에서는 요즘 음모론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중심 세력을 의미한다고 보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당국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의 삶은 타락한 자들의 안녕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결코 그토록 심하게 타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우수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왜냐면 그 타락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타락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불난 집처럼 태우듯이 소멸되어 가면서 소비적인 삶을 살아주기 때문에 당국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도 권력자들이 오래도록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대중들을 애써 가르치지 않음으로 반항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쾌락이나 나태함을 탐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도록 한다. 그들은 버는 족족 기업가들의 상품을 사주는 소비자의 역할만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특수하다. 심지어 당국자들이 나라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깔보고 부자들을 실컷 비난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왜냐면 북한 정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안보를 게을리 할 수 없고, 안보를 염려하는 다수가 결국은 여당을 지지하리라는 기대감 때문일까? 그래서 비난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안보를 염려하는 다수는 더욱 보수적이 될 수 밖에 없고 착각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북한이 저토록 파멸하기 일보 직전이니 어찌 정권을 유지할 호시절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너무 안일하게 선거를 치렀고, 반면 위기감을 느낀 야당은 서둘러 보수적인 지도자를 내세워 우클릭을 시도하면서 민심을 챙기기 시작하자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거 야당을 찍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타락은 표심을 잃지 않으려는 당국자들의 꿈수에 편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통일과 더불어 강력한 도덕재무장 운동이 이 나라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땅에서 거룩한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개신교도들에게 거룩에 대한 사명이 더 무겁게 지워지고 있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곳에 사는 거룩한 사람 열명을 요구하셨다.

거룩한 사람은 소수라 할지라도 그 사회를 지탱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 축복한다. 거룩한 삶의 순도를 높이고, 더 보람있고 더 가치있고 더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란다.

거룩한 삶에는 타락한 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 거룩한 삶에는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다. 거룩한 삶에는 우선적으로 영적 안정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안정이 없는 삶은 부평초와 같아서 너무 쉽게 세속에 휘둘리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동한다. 천군과 천사가 보호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을 인도한다.

거룩한 삶을 살면 복된 삶을 누린다. 의식주가 무난한 삶을 살아간다. 크게 부자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가난하지 않게 하신다. 또 부자이면서도 영적인 안정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자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자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킨다. 짧은 기간에는 이것이 잘 인식되지 않으나 역사 전체를 분석해 보면

이런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4,16절에 우리가 세상에는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유를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는 세속적 가치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주권이나 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거룩해진다. 벌써 듣기 시작하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믿는자는 더 거룩해지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다. 우리의 거룩의 수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만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또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아니다.

15 내가 비유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의 거룩함은 배와 바다의 관계와 같다. 배는 바다에 떠 있지
만, 결코 침몰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은 자부심은 될지언정 자량이 될 수는 없다. 우
리의 거룩은 신분상승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여 낮아지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
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섬기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야 한다.

20 내가 비유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
리니이다

<찬양예배>

제목 :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성경: 레위기 1장 1-9절

Tag:예물,제물,번제,헌신,헌금,속죄,구약성경,레위기

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 것이요

7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뜯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9절)

1. 자발적인 예물 : 예물을 드리려거든. 헌신하려 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이 필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말 그대로 예물이며 헌신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예물이 예물의 가치를 높이고 드리는 자에게

복이 된다.

2. 소나 양으로; 소나 양은 온순하고 정결한 짐승이다. 예물이란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이 예물이다.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감동이 중요하고, 그 예물이 정결하고 분쟁이 없는 예물인 것이다. 예물이 핑계나, 허례나, 억지가 되어서 부당한 예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

3. 소나 양으로;부자는 소로, 서민은 양으로,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드리라. 형편껏 예물을 드리되 정성만큼은 가득하게 드리라.

4. 기쁘게 받으시도록; 스스로가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자. 예물은 기쁨으로 거룩해진다. 부족한 예물일지라도, 사정이 있는 예물일지라도 기쁨으로 거룩하게 하라.

5. 속죄의 예물; 원망들을 만만 한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속죄의 예물을 드리라.

6. 5절. 피의 제사;희생의 제사. 희생이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함. 내가 다른 사람 대신 뭔가를 감당하는 제사가 희생의 제사가 됨.

7. 6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뜸; 가죽은 옷을 의미함. 자기의 의를 벗겨냄. 자기의의를 벗겨냄(제사장의 뉘). 각을 뜸.(가죽을 벗겨내서 각을 뜨기 쉬움) 각을 뜨는 이유는 편리하게 제사를 지내기 위함. 제사장의 처분에 맡김을 의미함.

8. 화제(번제). 향기로운 냄새;불에 태워 연기로 만들어 버리는 제사. 열량을 얻기 보다는 연기를 얻기 위해 태우는 제사임. 연기를 맡고

평안해지시는 하나님. 연기를 맡고 노여움을 진정시키시는 하나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일별 백계 하시는 하나님. 죄의 댓가로서의
연기가 퍼짐으로 주변의 사악한 자들의 악의를 잠재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시기 원하시는 의미도 있음.